

부산 스포츠 신문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2**
2023. 10

부산체육人

한 발, 한 발, 부산 사격을 만나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서갑병 회장

영광의 인물

부산 골프의 대중화에 헌신하다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 김종웅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금빛 물살 가르느 인어의 질주
사직고등학교 수영부 이송은 선수

구·군체육회를 가다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BSC 뉴스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부산체육人

한 발, 한 발, 부산 사격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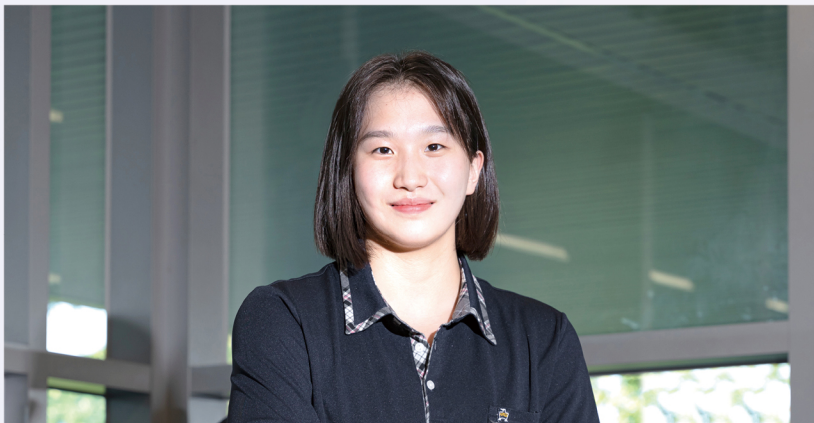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서갑병 회장



영광의 인물

부산 골프의 대중화에 헌신하다

-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 김종웅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금빛 물살 가르며 인어의 질주

- 사직고등학교 수영부 이송은 선수



구·군체육회를 가다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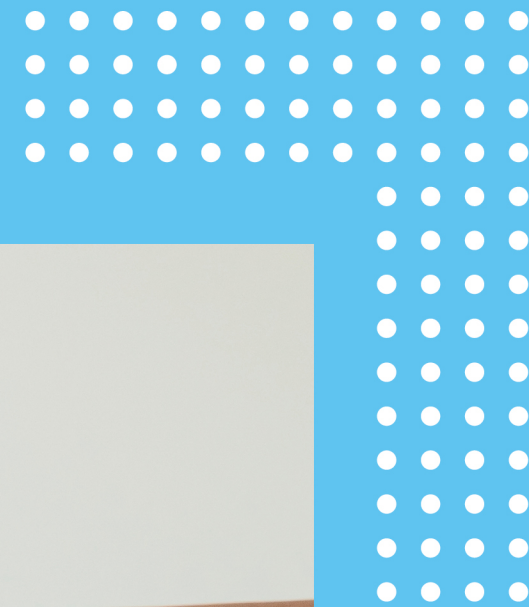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BSC 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한 발, 한 발, 부산 사격을 만나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서갑병 회장

“부산 사격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 이후 갓 3개월 차에 접어든 서갑병 신임 회장에게 취임 소감을 묻자 너무도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사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산광역시사격연맹 회장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연애하듯이 사격을 알아가며 친해져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 회장은 군대에서 총기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도 등지에서 가볍게 사격을 경험해 봤는데, 회장직을 맡으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사격을 알아가는 중이다.

“사격은 한 발 쏘기 위해 많은 과정과 무수한 변수를 이겨내야 하는 스포츠더라고요. 또한 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신력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갑병 회장은 시설과 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사격 종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 사격의 중심인 영도사격장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시설이 50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사격장은 최소 20배 이상의 규모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사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격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제도 등 복리후생을 통해 선수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하며, 임원진과 지도자들을 자주 만나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서갑병 회장.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여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와 전혀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 부산광역시사격연맹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부산 사격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좋은 연맹과 팀이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 골프의 대중화에 헌신하다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

김중웅 원로

골프는 평생에 걸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저는 걸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골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김중웅 원로는 1980년 그가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정부 지원으로 방학 동안 영국 런던대학으로 3개월 연수를 가게 되었다. 그는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골프를 처음 만났다.

“테니스 종주국인 영국에서, 골프의 성지인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올드코스를 다 밟아보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김중웅 원로는 1980년 교수 테니스대회 우승으로 화려하게 테니스를 마무리한 후, 1981년 8월 정식으로 골프에 입문했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골프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협회 창단이 필요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골프를 시작한 몇 명이 모여서 골프협회 창단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1986년에 초대 백제갑 회장(동성화학 회장)이 추대되었고, 김종웅 원로는 전무이사로 창단에 힘을 보탰다. 이후 주니어 육성을 위해 협회 이사를 중심으로 장학사업(김미현, 김승혁 선수 등 다수 지원)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골프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덕분에 부산에서 골프의 인지도는 크게 올랐다.

김종웅 원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광역시골프협회회장으로서 부산 골프에 헌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부산의 골프 인구는 50만 명에 달한다고. 그가 골프 대중화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그만의 운동 철학과 골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운동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프는 평생에 걸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저는 걸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골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금빛 물살 가르는 인어의 질주

사직고등학교 수영부

이송은 선수

이송은 선수의 주 종목은 ‘혼영’이다. 처음에는 접영과 평영을 했지만, 자유형과 배영도 곧 잘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코치 선생님이 혼영을 추천 해주었다고. 그 결과 이송은 선수는 혼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맹활약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송은 선수는 올해 대통령배와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연속 개인혼영 200m·400m 1위를 차지하며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발목 부상으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발목 재활을 받으며 노력 중인 이송은 선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 기록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실업팀에 들어가 수영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송은 선수. 앞으로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고,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 수영의 자존심을 넘어 대한민국 수영의 황금기를 이어갈 이송은 선수. 푸른 물속을 유영하는 인어의 금빛 질주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이하 강서구체육회)는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영위’라는 슬로건 아래 15만여 명에 이르는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서구체육회는 강서구의 자랑거리인 30리 벚꽃길에서 진행하는 ‘강서낙동강30리 벚꽃축제’와 강서구 내 경로당 8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강서노인운동회’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체육 행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대저수문생태공원의 그라운드골프 수업 등이 인기가 많으며, 명지 풋살장에서 진행되는 여성풋살교실은 풋살에 대한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체육회는 앞으로 강서구의 다양한 체육기반시설 이용,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나아가 강서구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체육계 인사 등 600여 명 참석, 결의 다지는 시간 가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하고 부산대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필승의지를 다졌다. 결단식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였고 이어 선수대표로 김민규 선수(검도·부산시체육회)와 윤예린 선수(육상·부산체고)가 나와 대표선서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동안 구슬땀을 흘려 노력해 온 선수와 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전국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도 부산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부산을 대표하여 국위를 선양할 우수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은 육상 등 49개 종목 1,67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체육축제로 시민 화합의 장 마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지난 2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1개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야제에서 16개 구·군체육회에서 준비한 퍼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였으며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의 퍼포먼스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경기력상은 북구체육회가 2년 연속 차지하였으며, 성취상은 연제구체육회가 차지하였다. 전야제 입장 퍼레이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질서상 1위는 수영구 체육회, 화합상 1위는 강서구체육회가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였으며, 이번 대축전의 체육대회 운영 우수단체는 그라운드골프협회와 줄넘기협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할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



전국 지자체와 시·도 체육회 중 최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중에는 동백전처럼 소비자가 상품 구입 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있었어도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부산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부산체육사랑카드’를 출시했다. 부산시체육회 회원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이번 카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를 통해 해소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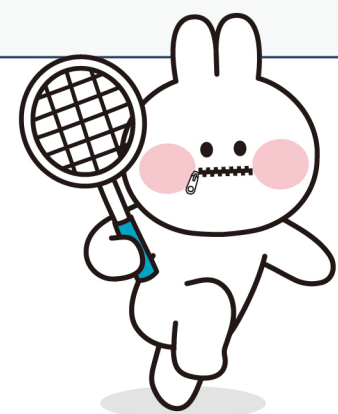
Q
&A

부산체육사랑카드, 무엇이 특별한가?

Q

평소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체육사랑카드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지정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50개)을 이용할 때 **월 최대 1만5천 원 한도로 10% 이용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내 구·군 생활체육센터는 물론, 스포원파크, 명지레포츠센터, 동래인공암벽장, 장안천야구장,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남구실내빙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할인이 적용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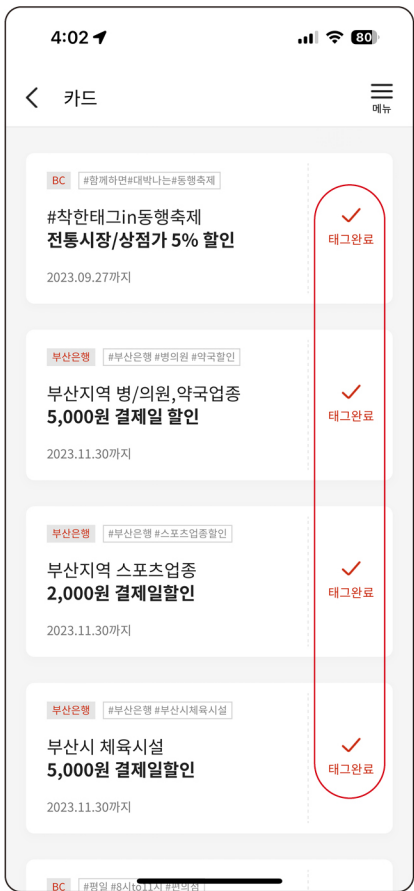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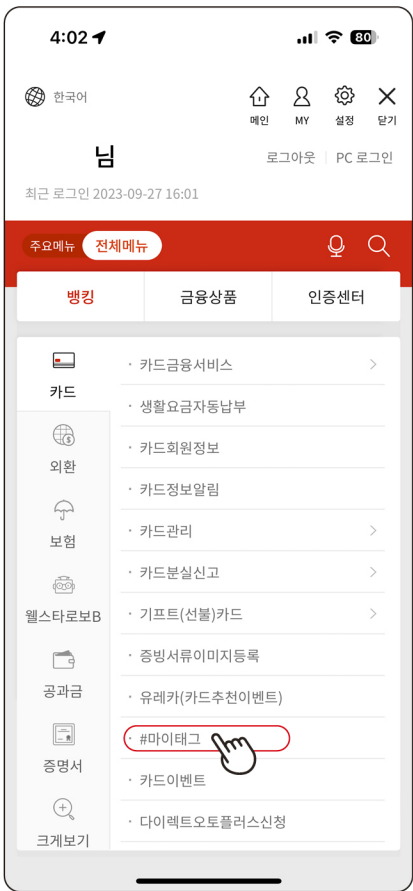
저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소속인데 장안천야구장, 리틀야구장 같은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스포츠 시설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혜택이 한정적이지 않은가요?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선호하는 5대 업종(스포츠, 의료, 건강식품, 학원, 생활)**에서 할인이 된답니다. ▲골프, 레저, 스포츠 업종과 ▲병원, 약국 업종에서는 월 2회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10%, ▲학원이나 ▲홍삼, 인삼 등 건강식품 업종, ▲간편 결제, CU, GS25, 스타벅스에서도 월 2회 최대 5천 원 한도에서 5% 할인 혜택이 주어 진답니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까지 된다니 혜택 범위가 꽤 넓군요! 연회비가 1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업종별로 월 할인한도 안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 한 달에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니 완전 꿀이득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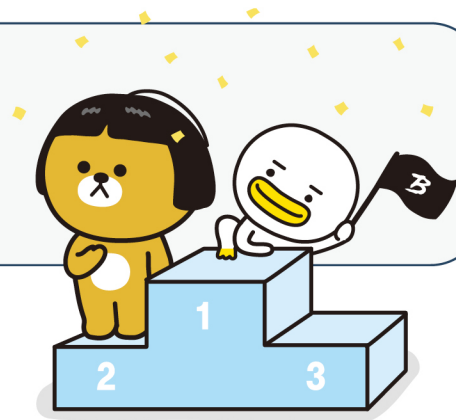


그럼요! 완전 꿀이득이지요! 단, 통합 할인한도에 따라 40만 원 이상 시 1만 원, 80만 원 이상 시 2만 원, 120만 원 이상 시 4만 원의 혜택을 받는답니다. 또한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를 기념하 여 올해 11월 30일까지 부산지역 스포츠 연계 업종 결제 시 최 대 1만 2천 원 할인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 개 인 신용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 능해요! 이벤트 이용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카드>#마이태그 페이지에서 부산시 체육시설 및 스 포츠 업종, 병원약국 업종을 태그하고 난 후 결제하면 할인이 제공된답니다.



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체육을 사랑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카드이겠군요.
이 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열심히 훈련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활체육인 동호회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내년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